

“내 연등은 내손으로 만들자”

도반들과 어울려 불심으로 연일말며 공동체의식 배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마다 연등제작이 한창이다. 스님, 신도가 어우러져 꽃잎을 말면 한쪽편에는 이담하고 우아한 연등이 쌓여간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빨간 물이 질을수록 괜히 어께가 으쓱한 때이다. 밤마다 빙 둘러앉아 연등을 접을 때 노보살님이 둘러주는 옛 인과응보 이야기는 그대로가 법문이 되곤한다.

그러나 요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감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개인주의가 광배하다보니 사찰을 찾아 등을 만드는 불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찰들은 연등 제작할 일손을 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4-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고있는 현상으로 연등보다는 주름등이나 팔각등처럼 완성된 등을 주문하는 일이 늘



◇손길이 많이 가는 연등 제작이 해마다 10% 가량 줄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 신하 각종 신도회는 금년부터 연등제작에 동참, 불심을 키우고 있다.

사찰마다 일손부족... 주름등·팔각등으로 대체 “가족끼리 등 만들어 ‘이웃에 보시’ 정착돼야”

있었다.

제주의 B사는 금년부터는 아예 연등제작을 중단하고 모두 주름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B사 주지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만드는 것은 신심고양과 수행의 하나이므로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바쁘다보니 여지로 강요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연등제작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고지대 사찰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깊은 산 속 암자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 신도들의 발길이 뜸한데 재적신도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지대 신도가 적은 사찰은 사중의 대중

들이 겨울부터 연등제작을 시작해 초과일을 맞고 있다.

조계사 주본 불교용품 상인들에 따르면 해마다 연등용품의 판매가 10%정도 줄고있다고 한다. 더구나 전문적으로 연등을 만드는 업체가 서울에만 5-6개가 있어 이들 업체가 만든 것을 제외하면 사찰에서 직접 제작하는 연등의 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찰에서 연등제작이 줄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금년부터 연등만들기 운동을 신도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법회, 불교대학, 신도회 등 봉은사산

하의 신행단체별로 1달가량의 기간을 정해 연등제작에 불두하고 있다.

“이웃에 등 선물”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봉은사 관계자는 “불교 최대의 명절에 동참하는 것은 불자로서 가장 큰 마음이다”며 가까운 사찰을 찾아 연등 제작에 동참하기를 권했다. 또한 “불교용품점에 다양한 등재료가 많이 나와있으니 사찰에서 등을 만들 여건이 안되면 가정에서 온가족이 등을 만들어 이웃에 보시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15일 자선생활한복 발표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모주)는 5월15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제2회 자선생활한복 발표회를 갖는다.

한복입기운동을 전개키위한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예복, 파티복 8벌, 두루마기 2벌, 원피스, 투피스 등 약 30벌이 소개된다.

한편 이날 행사로 모아지는 수익금은 ‘장신대 위험탈 권립’ 기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장애인가족 50여명 आयु회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달)은 지난 20일 부천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50여명을 초청, ‘장애인가족 आयु회’를 가졌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석왕사 신행단체인 법륜회소속 기사 10여명이 참석, 장애인을 안내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장기 자랑을 함께했다.

2년전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인이된 김희성씨(70)는 “시력을 잃은뒤 처음으로 뛰어보았다”며 하루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5월 가정의 달 교계 가족참여 문화행사 ‘다채’

5월은 교계에 있어 어느때보다 의미있는 달이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구제를 위해 나뉜신 부처님 오신날과 가정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각종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을 맞아 가정화목과 신심고취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비롯한 10여개 단체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불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어린이 날, 아버지 날, 부처님 오신날에는 피크닉이다. 전국의 각사암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5월행사는 경호잔치, 어린이 백일장, 청소년 예술제, 문화재 탐방 등이 주를 이룬다.

가정의 달 5월, 자비로운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가정의 달을 의미있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행 사 명	주 최	일 시	장 소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경계대회	현대불교신문·한국불교청년회	5월 5일	남한산성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원각 불교	5월 5일	목아사박물관
전국가족 마라톤대회	국립중앙도서관	5월 5일	회전주변도로 5.5km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민속 한마당	부대문화기행	5월 5일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아버지날 자녀되어 드리기	김용중합사회복지관	5월 6일	복지관 강당및 가정방문
어린이날 꽃달이드리기	(사)정교련 대전지부	5월 7일	대전시내 무량암로연
경호잔치	법흥종합사회복지관	5월 8일	복지관
연극 선의여왕 공연	극단 동쪽나라	5월11~12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청소년 문화대축제	조계종 포교원	5월12일	울림파역도경기장
두루마기	조계종 복지재단	5월14일	탈골공인
제3회 연교노인잔치	종교사·보현사	5월15일	식당분공인
내고장 문화재 탐방	(사)정교련 대전지부	5월19일	원평산성, 계곡산성등
청소년 음악회	목동청소년회관	5월19일	목동청소년회관 극장
제9회 청소년 종합 예술경연대회	(사)정교련 중앙본부	5월26일	동국대 중앙당
제1회 참나청소년 미술 지도자 통일문화 예술대전	한국불교청년회	5월26일	음산 정경기념관
사람의 편지쓰기	원곡청소년센터	5월28일	
독경대회	조계사	5월28일	교목문화회관

만 화 법 구 경

* 길의 장 *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말아야 한다

이 향 원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남 전

NANSEN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

날아가는 새는 푸른 하늘에 발자국을 남겨 놓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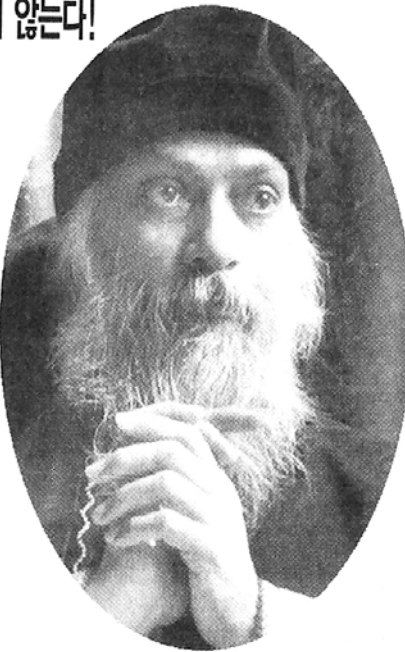
깨달은 자들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곳에도 따라갈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의 길, 그대 홀로 걷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대만의 존엄성과 크나큰 자유를 의미한다.

남전선사는 선(禪)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몇 안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에 이르러 선은 작은 불종기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이 되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켰으며, 그 (함께 있음) 안에 비로소 전체성과 기쁨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펼쳐보이는 다양한 선의 세계를 접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형시켜가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더 나아가 보다 획기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



법구경 1 2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법구경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들었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피든 우리에게 생로죽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내 영혼이 눈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가지 명상 비법 무삭제 완역 공개!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신국판 / 전 4권 / 각권 값 6,500원

임 제

RINZAI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

조 주

JOSH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

마 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